



3면

"세만급 국가사업 정상화하라"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3년 12월 1일 금요일 (음 10월 19일) 제3396호

대표전화 (063)288-9700

완산공원 일대 관광명소로 재창조

전주, 구도심 변혁 알려
2026년까지 530억 투입
생태·문화 콘텐츠 중심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
완산공원 더 스페이스
한빛마루공원 조성 추진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달 30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완산철봉을 전주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드는 청사진을 밝히는 브리핑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전주시가 천년 역사의 중심인 완산공원 일대를 관광명소로 재창조해 전주 구도심의 변혁의 시작을 알리고, 전주형 도시재생 모델을 구현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16면>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달 30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완산철봉을 전주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드는 청사진을 밝히는 브리핑을 열고, "완산공원은 전주의 옛 지명인 '완산'이 자리한 역사의 땃줄과 같은 곳이지만 도시화 속에서 점차 낙후돼 사람들이 떠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를 도시의 산업과 경제를 회복하고, 완산동 일원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더해 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완산빙커 더 스페이스 구축 △완산철봉 한빛마루 공원 조성 △관광 수용 태세 개선의 3개 핵심과제를 담고 있으며, 총 사업비 530여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먼저 시는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총 92억 원을 투입해 충무시설 기능을 상실한 완산 빙커를 전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예술 공간인 '완산빙커 더 스페이스'로 재창조하기로 했다.

특히 완산빙커 더 스페이스는 시민들에게는 다소 낯선 페빙커를 문화관광 시설로 재활용한 이례적인 사례로, 빙커 내부에는 우주를 주제로 하는 미디어아트가 구현된다.

시는 개미굴 형태의 독특한 공간구성과 삼감형 콘텐츠 기술 등을 선보여 방문객이 흡사 가상의 세계를 탐험하는 듯한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예정으로, 현재 빙커 콘텐츠 구축 및 기반 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는 오는 2025년까지 총 206억 원을 투입해 꽃동산 등 주변 자연환경과 연계한 '완산철봉 한빛마루 공원'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시는 도심 속 녹지공간인 완산공원 일대를 치유의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과 여행객이 자연에 머물며 숲과 호흡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완산철봉 한빛마루공원에는 △랜드마크 지구 △힐링캠프 지구 △플라워 갤러리 지구 등 주제별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전망대와 인공폭포, 하늘데크길, 출렁다리 등 다채로운 체험 시설도 갖춰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시는 이곳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이 전주한옥마을 등 전주의 야경을 조망하고 즐길 수 있도록 야간 경관시설도 갖추기로 했다.

끝으로 시는 변화하는 완산공원을 찾게 될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김욱기 기자>

가장 먼저 완산빙커 개관에 발맞춰 총 113명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빙커 진입도로의 폭을 넓혀 교통 혼잡을 줄일 계획이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주변 입지와 교통 수요 등을 고려해 공영주차장을 추가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인근에 기초성된 전주동학농민혁명 녹두관과 완산도서관, 서화예술광장 등 인근 문화시설과 연계하고, 장기적으로는 완산동 일원을 주거와 상업·관광 등 복합적 기능을 갖춘 '전주형 도시재생 모델'로 구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구도심은 전주의 정체성이자 도시 역사의 중심이며, 그동안 상징적인 공간으로만 머물러 온 이곳을 이제는 변화시켜야 할 때"라며 "그 변화는 완산동에서부터 시작되며, 곧 다가올 구도심의 혁신을 함께 응원하고 지켜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12월 1일 '에이즈 예방의 날'

'빠른 검사로 불안 제로'

도·14개 시군, 7일까지 예방주간 운영
오늘 전주 객사 일대서 홍보 캠페인 진행

전북도가 1일 '제36회 세계 에이즈의 날'을 기념해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전북지회, 전주시보건소와 함께 전주 객사 일대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에이즈 예방 및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

'에이즈, 예방과 빠른 검사로 불안 제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캠페인은 감염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는 사회를 조성하는 데 동참할 것을 홍보하며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캠페인은 현장 상담 부스 운영, 보

건소 에이즈 무료 익명검사 안내, 에이즈 예방 홍보물 배부, 에이즈 정보 패널 전시, 올바른 콘돔 사용 안내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에이즈 예방주간(12월 1~7일) 동안 도내 14개 시·군 보건소,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전북지회 등이 협력해 에이즈 무료 익명 검사를 통한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의 중요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도내 지원되고 있는 에이즈 감염인 치료비 지원, 생활 상담 등에 대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직업계고 학생 지원 체계화

도교육청, 직업교육센터 설립 추진... 전주공고 내 4층 규모
도의회 예산 심의 거쳐 내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안건 제출

전북도교육청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직업교육 통합 지원시설 건립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고졸 취업 지원 및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독립된 거점 시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가칭)전라북도교육청 직업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직업교육센터는 전주시 여의동에 위치한 전주공업고등학교 내에 연면적 약 5,324㎡, 총 사업비 263억 여 원을 들여 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인재채용관, 산학협력관, 신기술 교육관이 들어선다.

1층 인재채용관은 상시채용존, 상설 홍보존, 다목적 강당 등으로 구성, △직업계고 학과별 교육활동 안내 △학 교별 홍보 부스를 설치해 계열별 교육과정 및 직업교육 정보 전달 △채용 희망 기업 안내와 구인구직 불일치 해소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 2층 산학협력관은 취업지원센터, 혁신지구지원센터, 일자리센터, 화상 면접실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는 취업관련 기관을 한 공간으로 통합해 취

업지원 역량을 확대하고, 취업상담·이력서작성·이미지메이킹·면접교육 등 취업을 위한 단계적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어 신기술 교육관은 3~4층에서 운영된다. 3층에는 온라인수업실·다목적 교육실·디지털교육실·디스플레이교육실 등을 갖추고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성된다.

4층은 반도체교육실, 이차전지교육실 등 지역전략산업 분야 인재양성 및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강 창의인재교육과장은 "무엇보다 이차전지, 반도체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체계적인 교육과 연수를 위한 직업교육 기관 설립이 시급하다"면서 "직업교육센터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체계적인 직업교육 지원을 위한 거점 시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직업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12월 열리는 전북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안건으로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WOODEN BRIDGE DESIGN
STREET FURNITURE DESIGN
FENCE DESIGN

주요제품

주 | 포스빌테크

조경시설물 전문업체

나라장터 국가공급전자조달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디자인 분야
Design Fence
www.psbtech.com

(주) 포스빌테크

본사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22 발산타워 6층 612.613호
Tel : 02)529-7705 Fax : 02)529-7703
E-mail : psb9602@naver.com
http://www.psbtech.co.kr